경주 신라 사찰 출토 성보 '한자리에'


신라 왕경 유적 출토 금동불입상

동국대 경주 박물관 · 국립경주문화재硏 공동 특별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황룡사지 · 분황사 등 발굴된
금동불입상 등 2백여점 전시
동국대 학생 사진 작품 선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사찰에서 출토된 불교 성보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송은석)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이(不二): 둘이 아닌 하나' 특별전시를 연구소와 박물관에서 공동개최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개막식은 5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황룡사지, 분황사,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등 경주 지역 신라 절터 발굴을 통해 출토된 불교문화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다.

또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함께하고 있는 문화유적 공동 발굴조사를 확장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방대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고학 · 미술사학 등 문화재 분야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대학 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는 2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 전시실에서 열리는 '흙 속에서 찾은 신라불교문화' 전시는 신라 사찰의 생활, 장엄, 의례와 관련한 유물을 새롭게 공개하는 자리이다.

신라 왕경의 중요사찰 유적 중 하나인 분황사, 사천왕사지, 인왕동사지에서 발굴한 통일신라 치미(鴟尾)가 공개된다. 치미는 목조건물의 용마루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부정한 기운을 내쫓는 벽사의 기능과 함께 장식효과를 주어 건물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020년에 황룡사지에서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는 금동봉황장식자물쇠도 처음 선보인다. 이외에도 소형금동불상, 소탑, 석조비로자나여래좌상 등 경주지역 절터에서 발굴한 2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신라불교문화에서 찾은 청춘' 전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1부 전시에 출품한 유물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개성 있는 사진과 영상 작품들이 공개된다. 전시에 참여한 사진작가는 모두 20~30대로 젊은 작가가 1300년 전의 신라불교문화를 직접 보고 느낀 감정과 여운을 개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불교문화에서 찾은 청춘' 전시는 미래의 고고학자 · 미술사학자 · 문화재 연구자로 활약할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등 재학생 9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사진 촬영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품한 사진은 당시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유물 사진이다.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별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4시 30분까지 입장),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전시실 동시 관람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하며, 모든 전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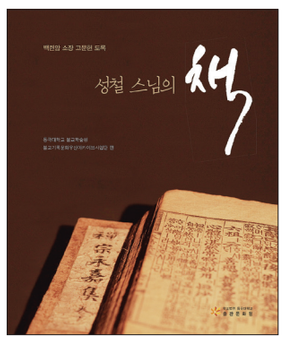
송은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은 "'不二: 둘이 아닌 하나' 전시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신라와 그 역사를 천년동안 지켜 온 경주가 청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두 전시는 각각 다른 장소에 열리나 서로 관계 속에 있는 '둘이 아닌 하나'의 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전시는 가까운 미래에 문화재 연구자가 될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 해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성철 스님 소장 고문헌 120종 'DB화'

동국대 ABC사업단 도록 발간
주요 문헌 이미지 · 해제 수록
불교전서 · 영인본 등 14종발행



조계종 종정을 지낸 퇴옹 성철(退翁性徹, 1912~1993) 스님이 소장했던 고문헌은 2231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중 한국 · 중국 간행본 등 주요 문헌 120종이 데이터베이스(DB)화돼 도록으로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1종, 귀중 불서 영인본 2종, 도록 1종 등 총 14종을 간행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역주편찬팀이 주도한 이번 출간은 서적의 분량 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정해진 연구진과 많지 않은 재원으로 난해한 역주서와 귀중한 불서를 한 학기에 14권이나 발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성철 스님의 소장 문헌에 대한 도록인 〈성철 스님의 책: 백련암 소장 고문헌 도록〉이다.

이 책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 사업단에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남 합천 해인사 백련암에 소장된 성철 스님 소장 고문헌을 조사 · 촬영한 결과를 소개하는 도록이다. 조사 대상이 된 고문헌은 국내 간행 불교 고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간행된 불교 고서와 일부 외서류 등을 포함한 총2231책이다.

그중 한국 간행본 40종, 중국 간행본 60종 그리고 백련암에 전래된 배경을 알 수 있는 20종 등 주요문헌 120종에 대한 이미지와 해제가 본 도록에 수록돼 있다. 또한, 함께 게재된 조사 개요와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의 논고 '해인사 백련암 소장 한국본 불서의 현황과 가치'는 소장 문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전체 2231책에 대한 간략 서지사항도 도록에 수록되어 있다. 백련암 소장 고문헌에 대한 상세 서지사항과 이미지 자료는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간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총 11종으로 △〈해심밀경소 제5 무자성상품〉 △〈선문염송염송설회회본 1〉 △〈현정론 · 유석질의론〉 △〈월봉집〉 △〈정토감주〉 △〈다송문고〉 △〈소요당집 · 취미대사시집〉 △〈선원소류 · 선문재정록〉 △〈치문경훈주 상 · 중 · 하〉이다. 영인본은 2종으로 △〈법화현론 권3 · 4〉 △〈인명입정리론소초 권5 · 6〉이 발간됐다.

동국대 ABC사업단은 "시대별 고승들의 사상이 담긴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천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아울렀고, 동시에 귀중한 불서의 영인본(원본을 촬영해 복제한 인쇄물)과 고문헌의 도록이 포함됐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ABC사업에서 쌓인 내공은 내용적으로도 한국불교학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제6회 예술공모전 작품 공모

10월 13~14일 접수, 불화 · 조각 등 4개 부문

문화재청장상 신설돼
11월 24~29일 전시회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에 노력해온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불화(전통 · 현대) · 조각 · 공예 · 민화 등 총4개 분야이며, 작품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관문사(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문화재청장상(최우수상)이 신설됐다.

불화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표구된 완성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조각은 높이 250㎝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 무게 500㎏ 미만이며, 조립한 완성작을 제출해야 한다. 공예는 높이 200㎝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민화는 높이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의 작품을 액자 제작 후 접수해야 한다.

각 부문 모두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료는 1점당 5만 원이다. 대학생의 출품료는 1점 당 3만 원이며, 학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 부문 작품 제작과정을 담은 세부 작품설명이 필요하며, 유리 액자로는 제출할 수 없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된다. 기 발표작 · 표절작 ·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작품, 타인 명의 출품은 불가하다. 초대작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작가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 원과 상장 · 상패가 주어지며,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 1명에는 상금 700만 원과 상장 · 상패, 우수상(4명)에는 상금 각 200만 원과 상장 · 상패, 장려상(4명)에는 상금 각 50만 원과 상장 · 상패, 특선(약간 명)에는 상장 및 상품, 입선에는 상장, 특별상(약간 명)에는 상장 및 기념패를 수여한다.

출품 서류는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대학생 학생증 사본 등이다. 공모요강과 출품원서는 6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24~29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중 열린다.

(02)547-4746(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박재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